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 성차를 중심으로

Gender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 Widowhood,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민 주 홍(Joohong Min)¹, 최 희 정(Heejeong Choi)^{2*}

¹Department of Human Ecology, University of Alberta,

²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examined whether informal and formal social participations ma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and whether gender may moderate the mediated associations. The data consisted of men and women 65+ who participated in the 3rd wave of the Kor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 N = 4,146). Findings suggest that first, widowed older adults experienc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compared to their married counterparts. At the same time, the widowed individuals also reported more frequent contacts with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 which contributed to narrowing the depression gap between widowed and married. Second, gender moderated the mediated association such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older widowed women. Further, no mediating effect was found of formal social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social, leisure, religious groups) for widowed and married regardless of gender. Previous studies indicated that social participation may be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that attenuates the effect of widowhood on depressive symptoms. Building on existing research, the present study highlighted theoretical rationales for potential gender differences in the way social participation may mediate the widowhood-depression linkage and evaluated statistically whether gender may moderate the mediated association.

▲주제어(Key words): 배우자 사별(widowhood), 우울(depressive symptoms),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성차(gender differences), 노인(older Adults)

I. 서론

노년기는 은퇴 및 자녀의 독립,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관계망의 축소를 경험하게 되며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이다(L. Carstensen, D. Isaacowitz, & S. Charles, 1999). 동시에 노년기는

배우자의 죽음과 같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애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배우자의 죽음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원을 상실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배우자 사망이 정신건강 특히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M. Lee, 2010, 2014; L. Li, J. Liang, A. Toler, & S.

* Corresponding Author : Heejeong Choi, Departmen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tel: +82-2-760-0559, E-mail: elphie@skku.edu

Gu, 2005; W. Stroebe & M. Stroebe, 1987; D. Umberson, C. Wortman, & R. Kessler, 1992; D. van Grootheest, A. Beekman, M. van Groenou, & D. Deeg, 1999). 배우자 사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횡단(G. Jeon, S. Jang, D. Kim, & S. Cho, 2013; M. Lee, 2012; M. Lee, 2010; S. Lee, 2010; J. Son & G. Han, 2012; M. Stroebe & W. Stroebe, 1983; W. Stroebe & M. Stroebe, 1987)과 종단연구(M. Lee, 2014; L. Li et al., 2005; N. Marks & J. Lambert, 1998; J. Song & N. Marks, 2007) 모두 일관되게 두 변수 사이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면역체계, 수면, 건강 관련 행동, 신체건강, 인지능력, 나아가 수명에 이르기까지 건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L. Berkman et al., 1986; Maes, 1999; R. Schulz, S. Beach, D. Ives, L. Martire, A. Ariyo, & W. Kop, 2000; N. Tsuno, A. Besset, & K. Pitchie, 2005),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유래 없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매개 혹은 중재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한편 결혼지위에 따른 정신건강, 특히 우울감의 차이에 대한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유무와 우울감의 관련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지만, 여성 보다는 남성의 경우 그 관련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 Lee, 2010, 2014).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감이 더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우울감이 더 높다는 사실은 배우자 사별이 남성의 우울감에 미치는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상실에 따른 배우자 유무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관련된 요인과 그 구체적 경로를 밝히는 것은, 성별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중재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서구의 경우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가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의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제공 받는 지원과 같은 요인으로 상기의 성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국내의 연구는 국외의 연구(S. Cheng & A. Chan, 2006; M. Silverstein & V. Bengtson, 1994; D. Umberson et al., 1992)와 같이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지원 등이 배우자 상실과 우울감을 매

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S. Cha, 2007; J. Son & G. Han, 2012), 이 요인이 배우자 상실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인지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사회참여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성차가 있다는 국외 선행연구(S. Nolen-Hoeksema, L. Parker, & J. Larson, 1994; S. Nolen-Hoeksema, 2001)와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에 성차가 있다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T. Antonucci & H. Akiyama, 1987; Y. Byeon, 2006; S. Gabriel & W. Gardner, 1999; J. Lee & G. Han, 2012),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있어 뚜렷한 성차를 보이는 국내 노인(H. Kim, 2000; Y. Kim, 2004)의 경우 사회참여가 배우자 사별 및 우울감과의 관련성을 매개하는데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한다. 특히, 사회참여의 성격을 비공식적, 공식적 사회참여로 나누어 결혼지위, 사회참여, 우울감과의 관련모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 간에 유의한 관계가 사회참여에 의해 매개된다는 국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는데 있어 특히 사회참여의 매개효과에서 크게 두 가지의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배우자 사별과 사회참여 그리고 사회참여와 우울감) 각각의 경로에 따라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특히, 이 두 가지의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차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성별에 따른 사회화에서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기본 틀로 하여 배우자 사별과 사회참여는 사회보완모델을, 사회참여와 우울감은 사회통합모델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1. 배우자 사별과 사회참여 그리고 성차

배우자 사별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보완모델(social compensation model)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K. Ferraro & M. Farmer, 1995).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참여의 안정성, 연속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관계나 사회활동이 축소될 경우 다른 사회관계나 활동으로 보완·대체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K. Ferraro and M. Farmer(1995)는 이 모델

이 적용되는 예로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이 기존의 인간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이 사별 전과 비교하여 (J. Ha, 2008; J. Ha & B. Ingersoll-Dayton, 2011) 혹은 결혼상태에 있는 노인들과 비교하여(S. Cha, 2007; E. Donnelly & J. Hinterlong, 2010; R. Utz, D. Carr, R. Nesse, & C. Wortman, 2002; J. Son & G. Han, 2012) 자녀, 친지, 친구, 이웃과 보다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만남의 빈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배우자 사별 후에 사회참여의 궤적을 분석한 L. Isherwood, D. King, and M. Luszcz 의 연구(2012)는 배우자와 사별이후에 사회참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사별자만을 대상으로 사별 후 사회참여와 관계망을 조사한 연구(B. deVries, R. Utz, M. Caserta, & D. Lund, 2014)에서 친구와의 접촉이 활발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부재가 사회관계망을 축소시켜 노인을 사회적 고립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시각에 반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K. Bennett(2005)과 M. Janke, G. Nimrod, and D. Kleiber(2008)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회참여를 특히 전반적인 사회참여와 레저활동에서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하였으며, S. Powers, T. Bisconti, & C. Bergeman (2014)의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접촉과 같은 사회적 접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후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와 성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회참여의 종류에 따른 역동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보완모델은 사회적 관계의 안정성,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기제의 하나로 보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성의 경우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한다면,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정서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S. Nolen-Hoeksema et al., 1994; S. Nolen-Hoeksema, 2001).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의 유형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 남성의 경우 공적 사회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사회화된다(J. Flaherty & J. Richman, 1989; S. Gabriel & W. Gardner, 1999).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여성은 남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들에 의지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아내만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유일한 사람일 경우가 많으며 아내 이외의 사람에게 정서적 친밀감, 지지, 위로를 구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T. Antonucci & H. Akiyama, 1987).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볼 때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들에 비해 공식적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친구, 친지, 이웃과의 만남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참여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할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사회참여와 우울감 그리고 성차

다음으로, 사회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차를 살펴본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참여의 성격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J. Lee & G. Han, 2012),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참여의 종류 역시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 Byeon, 2006; T. Schuster, R. Kessler, & R. Aseltine, 1990). 여성의 경우가 가족중심이나 친한 친구나 이웃과 함께하는 사교나 오락이 낮은 우울감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고, 남성의 경우는 이와 대조적으로 종교활동에의 참여가 낮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다(Y. Byeon, 2006). J. Lee and G. Han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친구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망과의 교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참여와 우울감에 있어 배우자와의 사별의 효과나 결혼지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접촉빈도(J. Son & G. Han, 2012), 자녀로부터 받은 지지(Umberson et al., 1992), 자녀에게 제공한 지지(A. DeMaris, S. Bavin, & R. Sullivan, 2001; G. Lee), 자원봉사활동(Y. Li, 2007), 사회관계망의 크기(D. Grootheest et al., 1999)는 모두 유의한 매개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와 보다 자주 만나 정서적, 사회적, 도구적 지지를 교환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사회 관계망의 크기가 커지면서 배우자 사망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통합이론(social integration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인과 정서적, 사회적, 도구적 자원을 교환하고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 정신·신체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S. Cohen & S. Syme, 1985). 사회통합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사회관계망의 크기, 사회참여의 빈도)와 기능(사회적

지지) 모두 건강과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L. Berkman & T. Glass, 2000; I. Kawachi & L. Berkman, 2001; T. Seeman, 1996; P. Thoits, 1995). K. Bennett(2005)은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 우울감이 높고, 사회참여도 저조해짐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 사별과 우울간의 관계가 사회참여에 의해 일부 설명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M. Janke et al. (2008)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정서적인 위로와 같은 혜택으로 인해 배우자 사별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감의 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실제로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원예활동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의 여가활동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는 배우자사별로 인한 우울감의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배우자사별과 사회참여의 변화나 그것이 우울감과 가지는 연관성에 있어 나타나는 연구결과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에 있어 사회참여의 어떤 측면에 더욱 취약하거나 혹은 어떤 측면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는지(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이나 지원을 제공받는 비공식적 측면, 봉사활동이나 동창회와 같은 공식적 측면)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참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참여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녀나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은 배우자와 사별한 이들의 우울감을 낮추는 유의한 매개요인임을 밝혔다(S. Cha, 2007; J. Son & G. Han, 2012). 그러나 사회참여의 종류에 따른 매개의 영향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노년기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과의 관계가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사회참여에 의해 매개되는지, 또 성별이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재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모델 설정에 있어 나이, 성별, 교육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주요 통제변수로 고려하였으며 배우자 사별, 사회참여, 우울감과 연관이 있는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직업유무, 그리고 자녀와의 동거 여부역시 통제변수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배우자 사별여부와 성별에 따라 사회참여와 우울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배우자사별과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참여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배우자 사별여부와 우울감과의 관계에서 성별은 유의한 중재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의 3차년도(2010)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은 2006년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주하는 1962년 이전에 태어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10,254명의 면접조사가 완료되었고 이들을 2008, 2010, 2012년도에 추적 조사한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2010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년기 남녀 총 4,146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차례로 살펴보면 <Table 1>,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4.5세였으며, 남성은 평균 73.9세 여성은 평균 75.1세였다. 남성은 전체 대상자 중 42.6%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많은 57.4%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67.23%가 무학 혹은 초등학교의 학력을 보고하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무학이나 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을 보고한 비율이 절반보다 적은 47.2% 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82.2%에 달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어려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이라고 보고하였고 남성은 평균 .24점 여성은 .28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총 9점 만점에 평균 .92점이었고 남성은 .90점 여성은 .95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직업의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4.6%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성의 경우는 37.0%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15.5%에 그쳤다.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여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총 29.7%가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36.8%가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혼상태인 참여자는 전체의 67.6%였는데 남성은 91.7%가, 여성은 49.8%로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사별을 경험한 참여자는 전체의 32.4%로 남성의 경우는 8.3%에 그친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50.2%에 달해 서로 다른 비율을 보여주었다. 우울감은 총 30점 만점에 남성의 경우 7.87점인 반면 여성의 경우 9.30점으로 여성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사회참여의 정도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Range	Total (n=4,146)		Men (n=1,771)		Women (n=2,375)	
		M / %	SD	M / %	SD	M / %	SD
Age	65-97	74.52	6.76	73.79	6.29	75.07	7.04
Gender							
Men		42.6					
Women		57.4					
Education Level							
Less than Elementary Graduate/Elementary Graduate		67.3		47.2		82.2	
Middle School Graduate		12.4		16.6		9.3	
High School Graduate		14.1		24.1		6.7	
Less than College Graduate/College Graduate		6.1		12.1		1.5	
Activities of Daily Living	0-5	.26	1.02	.24	.99	.28	1.05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0-9	.92	2.33	.90	2.24	.95	2.39
Having a Job		24.6		37.0		15.5	
Living with a Child		33.8		29.7		36.8	
Marital Status							
Married		67.6		91.7		49.8	
Widowed		32.4		8.3		50.2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	0-4	2.69	1.24	2.62	1.23	2.74	1.25
Formal Social Participation	0-4	.81	.72	.91	.75	.74	.69
Depressive Symptoms	0-30	8.69	6.00	7.87	5.75	9.30	.13

를 살펴보면,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경우 4점 만점에 평균 2.69점의 사회참여를 보여주었고 남성은 2.62점 여성은 2.74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가 높았다. 또한 비공식적 사회참여는 자녀동거여부($t = 5.55, p < .001$)와 직업유무($t = -5.46,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공식적 사회참여는 4점 만점에 .20점으로 비공식적 사회참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차를 살펴보면 남성이(.91) 여성보다(.74) 공식적 사회참여의 수준이 더 높았다. 공식적 사회참여는 자녀동거여부($t = 3.15, p < .01$), 직업유무($t = -5.24, p < .001$), 연령($t = -9.34, p < .001$), 그리고 교육수준($F = 77.78,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주요변수

1) 결혼지위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결혼지위는 '현재 결혼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로 질문하였고, 배우자와 사별한 집단을 1로 코딩하였다. 사별에 따른 배우자 유무에 초점을 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혼이나 별거, 독신 등의 경우(1.7%)는 결과 및 해석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성별

성별은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로 질문하고 응답범주는 남자 혹은 여자였다. 성별은 남성으로 보고한 경우

0으로, 여성의 경우 1로 코딩하였다.

3) 사회참여

본 연구의 주요독립변수이자 매개변수인 사회참여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1) 비공식적 사회참여

'가까이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다음과 같다: '거의 매일',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달에 두번 정도', '한달에 한번 정도',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 '일년에 서너번 정도', '일년에 한두번 정도',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본 연구에서는 '거의매일'을 4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및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를 3점, '한달에 한번 정도' 및 '한달에 두번 정도'를 2점, '일년에 한두번 정도', '일년에 서너번 정도', '일년에 대여섯번 정도'를 1점,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을 0점으로 코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부터 4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빈도가 높은것으로 보았다.

(2) 공식적 사회참여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주십시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종교

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의 7개의 응답범주가 주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률이 2% 미만인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및 '기타'를 제외한 문항에서 참여한다고 답한 경우 사회활동 참여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0-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공식적 사회집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4) 우울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Radloff(1977)이 개발한 총 10문항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CES-D10; Radloff, 1977) 한국어 버전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0점)'부터 '거의 그렇다(3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총점은 0점부터 30점 사이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나타내며, 신뢰도(alpha)는 .81이었다.

3. 통제변수

1) 연령

2010년 3차년도 조사당시를 기준 연령으로 사용하고 년 수로 측정하였다.

2) 교육수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로 질문되었고 총 9개의 응답범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 및 졸업', '중학교 졸업이하 및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하 및 졸업', '대학교졸업이하,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각 범주는 범주에 속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초등학교이하 및 졸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더미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은 1) 옷 갈아입기, 2) 목욕 또는 샤워하기, 3)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4) 이부자리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5) 화장실 이용하기의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위의 5가지 영역에서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로 묻고 각각의 문항을 '도움 필요 없음'은 0으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혹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은 1로 코딩하여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신뢰도(alpha)는 .96이었다.

4)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1)일상적으로 집에서 하는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2) 식사준비, 3) 빨래하기, 4) 가까운 거리 외출, 5)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 6) 물건사기 7) 금전관리, 8) 전화걸고 받기, 9) 약 챙겨먹기의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위의 9가지 영역에서 '모두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로 묻고 각각의 문항을 '도움 필요 없음'은 0으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혹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은 1로 코딩하여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신뢰도(alpha)는 .95였다.

5) 직업유무

'현재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의 문항을 사용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 1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6) 동거자녀여부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거한다고 응답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Hayes(2008)가 고안한 Process macro for SPSS v2.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년기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 간의 관계가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사회참여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하고, 이 매개효과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 즉 성별의 중재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를 검증하였다 <Figure 1>. 기존에는 매개효과 검증 시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방식에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본 연구를 예로 들면 사회참여라는 매개변수를 회귀식에 넣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사회참여 변수를 회귀식에 넣을 경우 배우자유무의 회귀계수 크기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보고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이 경우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 Baron and Kenny(1986)의 방식으로는 배우자유무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 Process 프로그램은 위의 두 경로의 회귀계수를 산출해주며 매개(간접)효과에 bootstrap 신뢰구간(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주어 통계적 유의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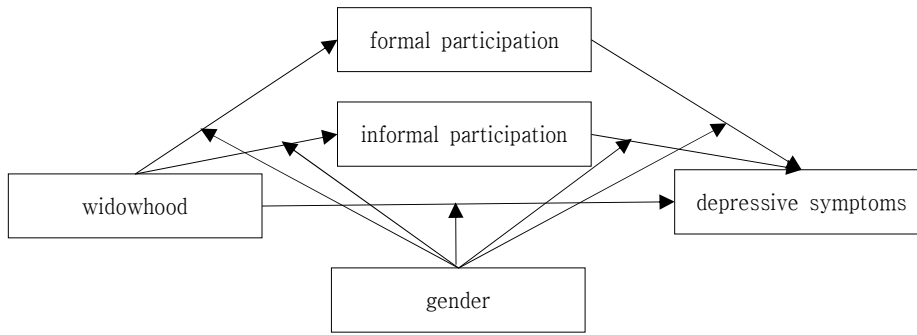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Baron과 Kenny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두 경로 각각에 중재된 매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Hayes, 200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뒤, 배우자 사별여부와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와 우울감의 상관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배우자 사별이 우울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배우자 사별이 사회참여를 통해 우울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즉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배우자 사별 ->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참여 -> 우울감)를 추정하였으며, 위의 매개효과 모델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에 미치는 성별의 중재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성별의 중재된 매개효과를 테스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차의 패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녀 노인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배우자 사별여부와 성별에 따른 사회참여와 우울감의 상관과 정도

각 주요변수들 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전 주요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배우자 사별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Table 2> 및 *t*-test분석 <Table 3>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배우자 사별여부에 따라 공식적 사회참여($t = 9.14, p < .001$), 비공식적 사회참여($t = -1.82, p < .001$)와 우울감($t = -8.42, p < .001$)의 수준은 유의하게 달랐으며 남성과 여성 간에도 공식적 사회참여($t = 7.61, p < .001$), 비공식적 사회참여($t = -2.98, p < .01$), 그리고 우울감($t = -7.65, p < .001$)의 수준도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결과 상관계수가 .5보다 낮고, VIF 계수가 2보다 낮아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n=4,146)

	a	b	c	d	e
Female ^a	-				
Widowed ^b	.44***	-			
Formal Social Participation ^c	-.12***	-.14***	-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 ^d	.05**	.03	.36***	-	
Depressive Symptoms ^e	.12***	.13***	-.21***	-.24***	-

p* < .01, *p* < .001

Table 3. Independent *t*-test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by Gender and Widowhood (n=4,146)

Variables	Men		Women		<i>t</i>	Married		Widowed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Formal Social Participation	.92	.75	.74	.68	7.61***	.88	.73	.67	.67	9.14***
Informal Social Participation	2.62	1.23	2.74	1.25	-2.98**	2.66	1.19	2.74	1.34	-1.82***
Depressive Symptoms	7.87	5.75	9.30	6.13	-7.65***	8.15	5.86	9.82	6.17	-8.42***

p* < .01, *p* < .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n=4,146)

	β	S.E.	t	p	LLCI	ULCI
Outcome: Formal Participation						
Widowed	-.04	.03	-1.5	.14	-.09	.01
	$R^2 = .12$	$F = 58.18$	$df1 = 9$	$df2 = 4135$	$p = .000$	
Outcome: Informal Participation						
Widowed	.15**	.05	3.10	.00	.05	.24
	$R^2 = .09$	$F = 40.87$	$df1 = 10$	$df2 = 4135$	$p = .000$	
Outcome: Depressive Symptoms						
Widowed	.63**	.22	2.86	.00	.20	1.07
Formal Participation	-.47**	.13	-3.51	.00	-.73	-.21
Informal Participation	-.82***	.08	-10.87	.00	-.97	-.68
	$R^2 = .17$	$F = 75.86$	$df1 = 11$	$df2 = 4134$	$p = .00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63**	.22	2.86	.00	.20	1.07
In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β		Boot S.E.		BootLLCI	BootULCI
Total Effect	-.10		.05		-.20	-.01
Formal Participation	.02		.01		-.00	.05
Informal Participation	-.12		.04		-.21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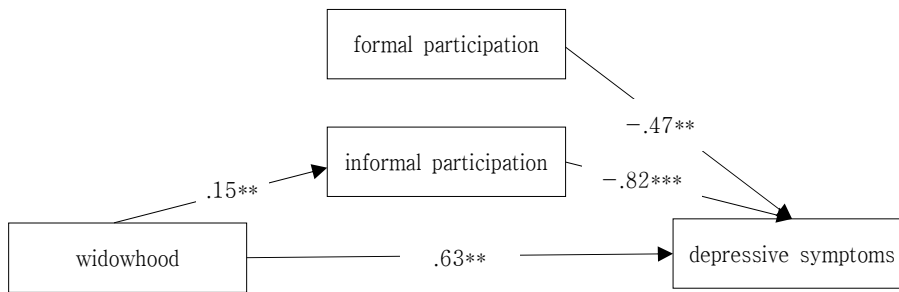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2.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과의 관련에 있어 사회참여의 매개효과

남성과 여성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식적 사회참여와 공식적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비공식적 사회참여만이 배우자사별과 우울감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igure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은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빈도($\beta = .15, p < .01$)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공식적 사회참여는 우울감과 유의한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beta = -.82, p < .01$). 종합해보면,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빈도가 클수록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배우자와 사별한 집단 간 우울감의 차이가 유의하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개효과: $.15 \times -.82 = -.12$, bootstrap LLCI = $-.21$, bootstrap ULCI = $-.05$). 그러나 공식적 사회참여의 경우 두

집단 간 사회단체 참여의 폭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beta = .00, ns$)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04 \times -.47 = .02$, bootstrap LLCI = $-.00$, bootstrap ULCI = $.05$).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 본 남성과 여성노인 사이에 관찰되는 사회참여의 매개효과에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 배우자 사별이 비공식적, 공식적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2) 비공식적, 공식적 사회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의 중재효과를 살펴보았다 <Figure 1>. 먼저 남성과 여성노인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배우자사별이 비공식적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beta = .23, p < .05$)이 성별에 의해 중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Figure 3>.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n=4,146)

	β	S.E.	t	p	LLCI	ULCI
Outcome: Formal Participation						
Widowed	-.08	.06	-1.29	.20	-.19	.04
Female	-.02	.03	-.61	.54	-.07	.04
Widowed \times Female	.04	.07	.68	.50	-.08	.17
	$R^2 = .12$	$F = 52.92$	$df = 11$	$df = 4134$	$p = .000$	
Outcome: Informal Participation						
Widowed	-.04	.10	-.39	.69	-.24	.16
Female	.05	.05	1.04	.30	-.05	.46
Widowed \times Female	.23*	.11	2.05	.04	.01	.46
	$R^2 = .09$	$F = 37.56$	$df = 11$	$df = 4134$	$p = .000$	
Outcome: Depressive Symptoms						
Widowed	.57	.48	1.19	.23	-.37	1.51
Female	-.25	.44	-.57	.57	-1.12	.62
Formal Participation	-.57**	.19	-2.93	.00	-.95	-.19
Informal Participation	-.83***	.12	-7.12	.00	-1.06	-.06
Widowed \times Female	.08	.53	.15	.88	-.96	1.12
Formal Participation \times Female	.32	.26	1.27	.21	-.18	.83
Informal Participation \times Female	.11	.15	.75	.45	-.18	.40
	$R^2 = .16$	$F = 53.95$	$df = 15$	$df = 4130$	$p = .0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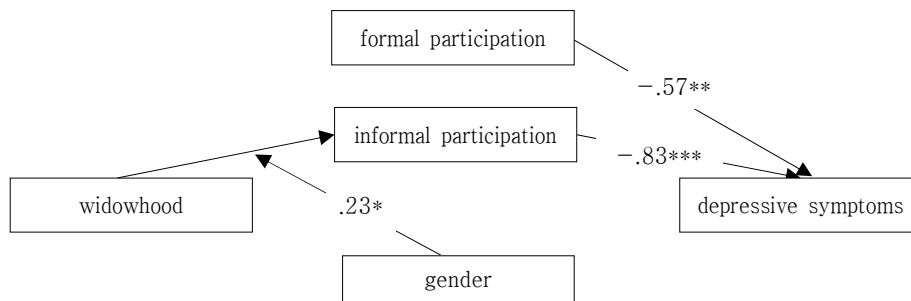


Figure 3.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마지막으로, 앞서 나타난 성별의 유의한 중재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성 과 여성 노인으로 나누어 사회참여 매개효과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 노인을 배제한 남성노인 모델<Table 6> <Figure 4>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와 사별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간에 공식적($\beta = -.05$, ns), 비공식적($\beta = -.04$, ns) 사회참여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 노인과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 모두에게서 공식적 사회참여($\beta = -.50$, $p < .01$)와 비공식적 사회참여($\beta = -.70$, $p < .01$)는 우울감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여성노인 모델 <Table 7> <Figure 5>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인은 친구, 친지, 이웃과 만나는 빈도가 높고($\beta = .21$, $p < .01$),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참여는 우울감과 유의한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beta = -.84$, $p < .01$). 종합하면, 친구, 친지 이웃과의 만남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과 이들의 우울감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매개효과: $.21 \times -.84 = -.18$, bootstrap LLCI = $-.29$, bootstrap ULCI = $-.08$). 이러한 패턴은 여성노인에게서만 발견되었으며, 남성노인의 경우는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50 \times -.70 = .03$, bootstrap LLCI = $-.15$, bootstrap ULCI = $.29$).

Table 6.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Men only (n=1,771)

	β	S.E.	t	p	LLCI	ULCI
Outcome: Formal Participation						
Widowed	-.05	.06	-.81	.42	-.17	.07
	$R^2 = .13$	$F = 30.41$	$dM = 9$	$dI2 = 1761$	$p = .000$	
Outcome: Informal Participation						
Widowed	-.04	.10	-.42	.67	.24	.16
	$R^2 = .12$	$F = 25.49$	$dM = 9$	$dI2 = 1761$	$p = .000$	
Outcome: Depressive Symptoms						
Widowed	.39	.45	.88	.38	-.48	1.26
Formal Participation	-.50*	.18	-2.81	.00	-.85	-.15
Informal Participation	-.70***	.1	-6.33	.00	-.91	-.48
	$R^2 = .23$	$F = 48.63$	$dM = 11$	$dI2 = 1759$	$p = .00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39	.45	.88	.38	-.48	1.26
In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β		Boot S.E.		BootLLCI	BootULCI
Total Effect	.06		.11		-.15	-.28
Formal Participation	.02		.03		-.03	.11
Informal Participation	.03		.10		-.15	.29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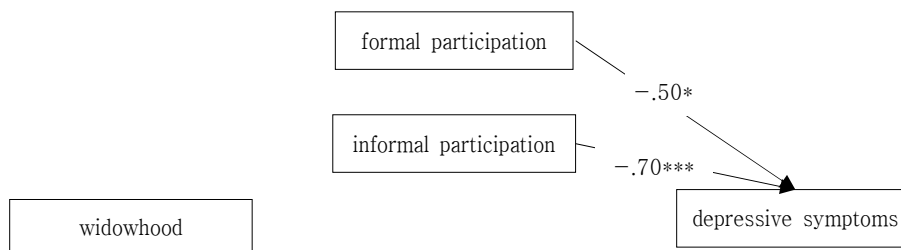


Figur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Men

Table 7.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Women Only (n=2,375)

	β	S.E.	t	p	LLCI	ULCI
Outcome: Formal Participation						
Widowed	-.04	.03	-1.5	.15	-.10	.02
	$R^2 = .10$	$F = 30.20$	$dM = 9$	$dI2 = 2365$	$p = .000$	
Outcome: Informal Participation						
Widowed	.21***	.06	3.84	.00	.11	.32
	$R^2 = .08$	$F = 21.79$	$dM = 9$	$dI2 = 2365$	$p = .000$	
Outcome: Depressive Symptoms						
Widowed	.84**	.27	3.11	.00	.31	1.37
Formal Participation	-.40*	.19	-2.09	.04	-.78	-.03
Informal Participation	-.84***	.10	-8.16	.00	-1.04	-.64
	$R^2 = .11$	$F = 30.29$	$dM = 10$	$dI2 = 2364$	$p = .00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84**	.27	3.11	.00	.31	1.37
In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β		Boot S.E.		BootLLCI	BootULCI
Total Effect	-.16		.06		-.28	-.05
Formal Participation	.02		.01		-.00	.06
Informal Participation	-.18		.05		-.29	-.08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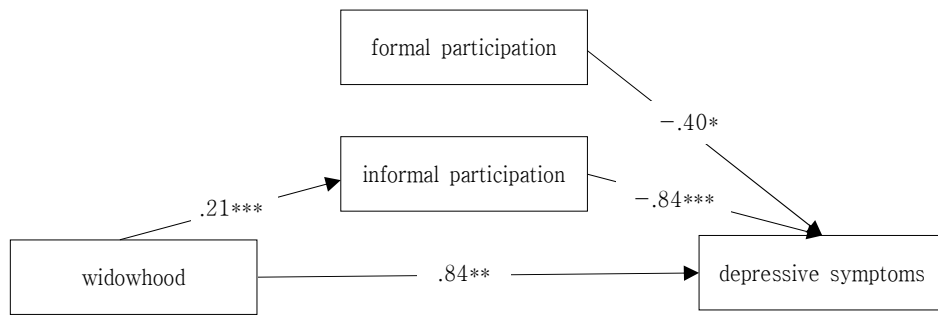


Figure 5.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Women

V. 논의 및 결론

사회참여는 배우자 사별과 같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기제의 하나로서 사회적 관계의 항상성 유지를 통해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과 정신 건강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참여에 있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참여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반면 국내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유형에 따른 매개효과를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별에 따라 이들의 매개효과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 및 배우자 사별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사회참여 및 사회관계망의 차이와 이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참여의 유형을 비공식적 및 공식적 사회참여로 나누고 이들이 사별로 인한 배우자 유무에 따라 남성과 여성 노인의 우울감을 다르게 완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노인을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남녀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공식적 사회참여는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을 매개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친구, 친지,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과 접촉이 더 많았고, 이는 두 집단 간 우울감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이러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 본 결과, 오직 여성노인에게서만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성별의 중재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에 한해서만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빈도가 결혼한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두 집단 간 우울감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친척, 친구와의 접촉빈도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참여는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의 관계를 매개하였지만 (G. Jeon et al., 2013)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단체 참여와 같은 공식적 사회참여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한 기존의 연구(J. Son & G. Han, 2012)를 발전시켜 친구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오직 여성노인에게만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별의 중재된 매개효과가 비공식적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보다는 배우자 사별과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경로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여성노인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이 남성노인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시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보완모델은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은 배우자 부재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관계나 사회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배우자 유무가 비공식적 사회참여에 의해서만 매개된다는 점은 배우자 사별은 무엇보다도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상실하는 경험인 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 Litwak(1985)이 제안한 특정과업모델에 따르면(task specificity model) 노인들은 정서적, 사회적, 도구적 지원 등이 필요할 때 본인들이 직면한 특정 어려움에 더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E. Litwak(1985)의 모델을 적용하면 배우자와의 사별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 믿고

의논할 상대'를 상실하는 경험이므로, 이와 유사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친구, 친지, 이웃과의 만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비공식적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 Ha, 2008; J. Ha & B. Ingersoll-Dayton, 2011). 이 결과는 성역할 사회화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의 성차로 인해 여성노인의 비공식적 사회참여가 남성노인보다 클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시사점과도 일치한다. 즉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 사회생활의 비중이 실리는 경향이 서구보다 더 뚜렷한 한국노인의 성 역할에서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실증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주는데, 남성 노인의 경우는 동창회나 직장 관련 모임 등과 같은 공식적 사회참여가 여성노인에 비해 두드러지고, 반면 여성은 친구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에서의 접촉빈도나 근접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 Lee & G. Han, 2012). 비공식적 사회참여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친구관계가 대부분 동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인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지를 구하는데 익숙하며, 이들의 친구인 여성노인들은 지지를 제공하는데 익숙하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은 여성노인이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생애사건이며, 이 때문에 여성노인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을 확률 또한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배우자 사별전과 비교해 배우자 사별 후 사회참여가 활발하고(L. Isherwood, D. King, and M. Luszcz, 2014) 배우자사별 직후로부터 가족관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촉과 같은 관계적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친구관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결과(S. Powers, T. Biscanti, & C. Bergeman, 2014)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발견한 여성노인의 배우자 사별과 우울감과의 매개 효과에 있어 친구나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유의한 역할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기간 이전부터 배우자와 사별상태가 계속된 지속적 사별자가 배우자 사별자의 대다수(8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배우자와 사별한 직후 일시적으로 변화된 모습보다는 지속화 된, 전반적 차이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별을 경험한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과 사별기간이 오래 된 사람들 사이에 사회참여와 우울의 정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조사시점에서부터 본 연구에서 사

용된 3차 조사시점 사이에 결혼지위가 결혼에서 사별로 바뀐 노인 165명에 대해 지속적 사별자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나, 동일한 모델에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조사기간 내 사별을 경험한 남성노인이 30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관련대상자가 누적되면 더욱 상세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공식적 사회참여에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전반적인 공식적 사회참여의 빈도가 너무 낮은 점을 지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성별과 더불어 연령이 동시에 중재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L. Carstensen et al.(1999)의 사회정서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노년기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시기로서 이러한 발달적 변화와 더불어 은퇴를 경험하면서 공식적 사회참여의 폭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단체 참여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중년남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공식적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성격이 다른 활동들이 공식적 사회활동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인 점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각 활동들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일반 사회/여가 및 단체 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S. Hong, L. Hasche, and S. Bowland(2009)는 사회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회참여의 세부영역을 합산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는데, 이 경우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활동들을 한데 묶어버리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사회참여의 세부영역의 조합에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식적 사회활동의 참여율이 너무 낮아 보다 세분화 된 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배우자 사별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중요한 생애사건이다. 사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밝히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밝혀져 온 매개변수인 사회참여의 특성을 세분화 하여 공식적 사회참여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참여가 배우자 사별과 정신건강 간 관계를 설명하는 유의한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기제는 사별 남성보다는 사별 여성노인에게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성차는 비공식적인 사회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경로 보다는 배우자 사별이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나

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식적 사회관계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우울감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는데, 배우자와 사별한 집단은 결혼 상태인 집단에 비해 공식적 사회참여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공식적 사회참여가 중요하지 않다가보다는 오히려 사회참여가 결혼지위와 상관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노인의 정신건강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비추어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의 유형을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공식적 참여의 빈도와 공식적 참여의 크기로 나누어 고려하였으나, 데이터의 제한점으로 사회관계망의 기능 즉 구체적으로 교환되는 사회적 지지나 자원이라든가, 관계의 질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사회참여의 구조적 측면에서 J. Son and G. Han(2012)의 연구는 성인자녀와의 접촉빈도도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성인자녀-노부모와의 접촉 빈도는 손자녀 양육과 같은 자녀 측의 요구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다(S. Cha, 2007). 본 연구에 포함된 노인들의 경우 데이터의 제한점으로 정확한 사별기간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대부분이 배우자와 사별한 지 4년이 넘은 경우이므로(90.5%), 사회보완모델에서 주목하는 사회관계의 항상성유지의 관점에서 자녀와 접촉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성인자녀-노부모 관계는 친밀감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K. Luscher & K. Pillemer, 1998) 자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은 역할규범이 아닌 상호호혜성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접촉빈도가 교환되는 지지자원의 질이나 관계만족도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는데, 그 특성상 배우자 사별 전후 사회참여 및 우울감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고령화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이유는 첫째, 1차(2006)부터 3차년도(2010)까지 4년 간 2010년 기준 65세 이상 4,146의 노인 중 165명(약 4%)만이 결혼에서 배우자 사별로의 전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회참여의 변화가 우울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에는 샘플의 크기 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P. Allison, 2002). 둘째로,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1, 2차년

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65세 이상 조사대상자를 약 21% 더 많이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할 경우 1차년도 조사에는 참여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은 연구대상자들에 의해 연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같은 패턴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종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좀 더 많은 조사시점과 조사기간 동안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면, 배우자 사별 전후의 사회참여 및 우울감의 변화를 고려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참여의 매개효과에 성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 종단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배우자 사별 전과 사별 후의 사회관계망과 우울감의 변화를 추정하고 비교하는 후속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llison, P. (2002). *Fixed effect regression model*.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Antonucci, T., & Akiyama, H. (1987). An examination of sex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men and women. *Sex Roles, 17*(11), 737-749.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nett, K. (1998). Longitudinal changes in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elderly, recently widowed men. *Mortality, 3*(3), 265 - 273.
- Bennett, K. (2005). Psychological wellbeing in later lif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marriage, widowhood and marital status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3), 280-284.
- Berkman, L., Berkman, C., Kasl, S., Freeman, D., Leo, L., Ostfeld, A., & Brody, J. (1986). Depressive symptoms in relation to physical health and functioning in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4*(3), 372-388.
- Berkman, L., & Glass, T. (2000). Social integration, social

-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ocial Epidemiology*, 1, 137-173.
- Byeon, Y. (2006). The Level of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in the elderly according to gender.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2), 128-135.
- Carstensen, L., Isaacowitz, D., & Charles, S.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 Cha, S. (2007). Marital status of elderly: Does it really matter for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7(2), 371-392.
- Cheng, S., & Chan, A. (2006).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r life: Do gender and widowhood make a differenc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1), 46-53.
- Cohen, S., & Syme, S.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3-22).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de Vries, B., Utz, R., Caserta, M., & Lund, D. (2014). Friend and family contact and support in early widowhood.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1), 75-84.
- Donnelly, E., & Hinterlong, J. (2010). Chang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volunteer activity among recently widowed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50(2), 158-169.
- Ferraro, K., & Farmer, M. (1995). Social compensation in adulthood and later life. In A. D. Roger, & L. Backman (Eds.), *Compensating for psychological deficits and declines: Managing losses and promoting gain* (pp. 127-14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laherty, J., & Richman, J. (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 empirical tes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8(12), 1221-1228.
- Gabriel, S., & Gardner, W. (1999). Are there "his" and "hers" types of interdependence? The implications of gender differences in collective versus relational interdependence for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642-655.
- Ha, J. (2008). Changes in support from confidants, children, and friends following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306 - 318.
- Ha, J., & Ingersoll-Dayton, B. (2011). Moder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ta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idowed adults. *Aging and Mental Health*, 15(3), 354 - 363.
- Hayes, A. (200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ong, S., Hasche, L., & Bowland, S. (2009).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activities and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49(1), 1-11.
- Isherwood, L., King, D., & Luszcz, M. (2012). A longitudinal analysis of social engagement in late-life widowhoo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4(3), 211-229.
- Janke, M., Nimrod, G., & Kleiber, D. (2008). Leisure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of widowed and married women in later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2), 250 - 266.
- Jeon, G., Jang, S., Kim, D., & Cho, S. (2013).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lders: The role of social tie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6), 963 - 973.
- Kawachi, I., & Berkman, L. (2000).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health In I. F. Berkman & I. Kawachi (Eds.), *Social epidemiology* (pp. 174-1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wachi, I., & Berkman, L. (2001).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78(3), 458-467.
- Kim, H. (2000). Modernity and Women's Labor Right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of Women's Studies*, 16(1), 37-64.
- Kim, Y. (2004). Gender rel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1), 1-30.
- Lee, G. R., DeMaris, A., Bavin, S., & Sullivan, R.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depressive effect of widowhood in later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6(1), 56-61.
- Lee, J., & Han, G. (2012).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and happiness. *Health and Social*

- Welfare Review*, 32(2), 170-205.
- Lee, M. (2010). Marital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older adults: Their associations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4), 32-62.
- Lee, M. (2012). Marital relation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lderly population: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4), 176-204.
- Lee, M. (2014). A longitudinal data analysis on depressive symptoms of Korean older adults: Examin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pousal loss and marital satisfaction across men and wom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7(1), 109-130.
- Lee, S. (2010). The Effects of Age, Economic State, Physical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Widowed and Married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6), 2215-2227.
- Li, L., Liang, J., Toler, A., & Gu, S. (2005).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Chinese: Do gender and source of support make a differenc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0(3), 637 - 647.
- Li, Y., & Ferraro, K. (2005).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1), 68-84.
- Li, Y. (2007). Recovering from spousal bereavement in later life: Does volunteer participation play a rol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4), 257-266.
- Litwak, E. (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and formal systems*. New York: Guilford.
- Lüscher, K., & Pillemer, K. (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413-425.
- Maes, M. (1999). Major depression and activation of the inflammatory response system. In R. Dantzer, E. E. Wollmann, & R. Yirmiya(Eds.), *Cytokines, stress, and depression* (pp. 25-46). New York: Springer US.
- Marks, N., & Lambert, J. (1998). Marital status continuity and change among young and midlife adults longitudinal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652-686.
- Nolen-Hoeksema, S., Parker, L. E.,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92-104.
- Nolen-Hoeksema,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73-176.
- Powers, S., Bisconti, T., & Bergeman, C. (2014). Trajectories of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across the first two years of widowhood. *Death Studies*, 38(8), 499-509.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chulz, R., Beach, S., Ives, D., Martire, L., Ariyo, A., & Kop, W. (2000).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 The Cardiovascular Health Stud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0(12), 1761-1768.
- Schuster, T. Kessler, R., & Aseltine R., Jr. (1990). Supportive interactions, negative interactions, and depressed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3), 423-438.
- Seeman, T. (1996). Social ties and health: The benefits of social integration. *Annals of Epidemiology*, 6(5), 442-451.
- Son, J., & Han, G. (2012).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on health among older women: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211-238.
- Song, J., & Marks, N. (2007).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retirement status on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A longitudinal U.S. national stud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1): 25-47.
- Stroebe, M., & Stroebe, W. (1983). Who suffers more? Sex differences in health risks of the widowed. *Psychological Bulletin*, 93(2), 279-301.
- Stroebe, W., & Stroebe, M. (1987). *Bereavement and health: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nsequences of partner loss*.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its, P.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3-79.
- Tsuno, N., Besset, A., & Ritchie, K. (2005). Sleep and

-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6(10), 1254-1269.
- Umberson, D., Wortman, C., & Kessler, R. (1992). Widowhood and depression: Explaining long-term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1), 10-24.
- Utz, R., Carr, D., Nesse, R., & Wortman, C. (2002). The effect of widowhood on older adults' social participation: An evaluation of activity, disengagement, and continuity theories. *Gerontologist*, 42(4), 522-533.
- van Grootheest, D., Beekman, A., van Groenou, M., & Deeg, D. (1999).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after widowhood: Do men suffer mor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4(7), 391-398.
- Van Baarsen, B. (2002). Theories on coping with loss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justment to emotional and social loneliness following a partner's death in later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1), 33-42.

- Received: June 10, 2015
- Revised: July 5, 2015
- Accepted: July 25, 2015